백봉 거사의 맥을 잇는 거사풍 참선도량

부산 광안리 새말귀선원

2013년 겨울용맹정진을 마치고

새말귀선원 건립

자기 마음속에 들어 있는 심원을 찾아내는 일, 그것이 수행이다. 대승의 바른 믿음을 발해 물러서지 않는 수행의 길을 걷다보면 본질을 투시하고 실상을 관조하는 안목을 얻는다. 그렇게 발현된 지혜의 안목은 영원히 자기를 살린다. 그래서 수행은 생명을 걸어볼 만한 일대사의 일이 되고도 남는 것이다. 생명을 걸어 생사가 둘 아닌 깨달음의 자리에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부산 광안동 새말귀선원(선원장 춘당 이황우)이다. 새말귀선원에는 '전 생애를 통틀어 수행보다 중한 일은 없다' 는 결론에 도달한 사람들이 거사불교의 횃불을 지켜들었던 백봉 거사의 뜻을 이은 춘당(春堂) 거사의 지도를 받으며 공부를 이어가고 있다.

새말귀선원은 도심에서 가정과 직장을 가진 재가불자들이 스승을 모시고 수행하는 거사풍의 참선도량이다. 1990년 1월, 부산 광안리에 위치한 춘당서예학원에서, 현재 현대불교신문에 연재되고 있는 '미발표 법문록' 의 백봉 김기추거사님의 법제자인 춘당 이황우거사님을 모시고 금요법회와 토요철야좌선이 시작되었다. 이후 전세살이로 도반들의 회비만으로 운영해 오던 선원이 이전을 거듭하다 2013년, 안정된 수행처의 필요성을 인식한 도반들이 자발적으로 일으킨 불사에 의해 십시일반으로 모금한 자금으로 수영구 금련산 자락에 새말귀선원이 올해 6월 준공되었다.

새말귀(새로운 화두)란 무엇인가?

좌선 중에는 화두를 들지만, 재가불자들의 생업에서 화두를 들기란 어렵다. 그래서 그 방편으로 제시한 것이 백봉 김기추거사의 새말귀이다.

먼저, 선지식의 설법을 통하여 일체만법인 상대성은 천연독존인 절대성의 굴림새라는 사실을 학인들에게 일깨우고 둘째, 학인들은 반드시 무상법신(주인공)이 유상색신(육신)을 굴린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화두를 지니는 것을 규법적인 특징으로 한다.

이 도리를 깊이 인식하여 모든 일상생활에서 양변의 모습에 떨어지지 않는 중도(中道)로서의 '모습을 잘 굴리자' 라는 말귀를 세워 나가자는 뜻으로 새말귀(新話頭)라 이름 한다.

새말귀선원장 춘당 거사는 '새말귀(새로운 화두)' 뜻을 부연 설명한다.

"스승님이 재가에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위해 제안한 신화두(新話頭)의 우리말입니다. 재가자들이 평상시 생활을 하면서 화두를 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양에 속하지 않는 허공과도 같은 것이 내 육신을 끌고 다닌다는 법문을 이해하고 '마음' 이라고도 하고 '주인공' 이라도 하는 그 놈이 일상의 일거수일투족을 한다는 생각을 놓치지 않으면 곧 화두를 놓치지 않는 효과를 거두는 공부법이죠." 그래서 새말귀선원 도반들은 복잡하고 바쁜 일상생활에서는 새말귀로 정진을 흩트리지 않고 이어간다.

'전 생애를 통틀어 수행보다 중한 일은 없다'

대승법문으로 출발

새말귀와 화두정진으로 수행의 관성을 높여가는 새말귀선원은 철저히 대승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다. 그래서 대승법문을 들을 수 있는 안목을 갖추는 것이 공부의 출발점이 되는데, 매주 금요일에는 선원장 춘당거사가 대승경전인 금강경과 유마경을 강설하며, 토요철야좌선 때는 선문염송을 통하여 선사들의 화두거리에 대한 법문으로 이어진다. 평상시에도 대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학인들은 의문점에 대해 선원장과 일대일 참문을 하는 것으로 일관한다. 또한 일 년에 하계와 동계 두 차례, 잠을 자지 않고 수행하는 용맹정진은 수행의 고비를 넘어서는 관문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올해는 3박4일 하계용맹정진의 일정이 잡혔다.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

'모든 부처님은 오직 일대사인연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출현하신다' 고 한다. 일대사인연이란 생사문제를 해결한 무상의 활연무애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지견이다. 이 인연이 있음을 부처님과 스승의 가르침이 아니라면 어떻게 알겠으며, 또한 스스로 불제자임을 자부한다면 부처님과 스승님의 지견을 받들어 따르고 행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새말귀선원의 학인은 불제자로서 할 일은 오직 수행뿐이라 확신한다.

새말귀선원 법회

새말귀선원 외부전경

법회안내

- **금요일 정기 법회**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 9시, 금강경 강론
- **토요일 정기 법회**
  철야정진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 일요일 오전 5시
  (설법 : 11시 ~ 12시 선문염송요론 강론)
- **하계 · 동계 용맹정진**
  여름과 겨울 두 차례 4 ~ 5일 철야용맹정진
- **4 · 8절 법회**
  음력 4월 8일 오전 10시 설법 및 좌선
- **화 · 수요일 정진**
  매주 화 · 수요일 오후 8시 ~ 12시 좌선
- **금요일 정진**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 ~ 12시 좌선

새말귀선원 이용안내

홈페이지 http://www.saemalgui.org

본 홈페이지는 구글 사이트 도구를 이용하여 제작하였으므로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 있습니다. 모바일(스마트폰)에서도 모든 법문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홈페이지를 모바일 버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YouTube에 영상법문 탑재

YouTube에서 '춘당 이황우거사' 를 검색하시거나 '慧明' 을 정기구독하시면 새말귀선원장의 법문 내용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새말귀선원 오시는 길

주소 :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장대골로 68번길 37-1
(구주소,부산시 수영구 광안동 522-4)

TEL : 051)759-1097
총무 : 010-3398-7945

2014년 여름용맹정진 안내

- 입제 : 2014년 7월 31일(목) 오후 9시
- 해제 : 2014년 8월 3일(일) 오전 10시

추천불서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나의 서원 나의 삶
현대불교신문사 저 | 292쪽 | 값 12,000원 | 우리출판사

불교는 서원을 세우고 실천해 가는 종교다. 서원은 절대자의 권능에 의지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기원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불보살의 서원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웃을 위한 무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다. 철저하게 이기주의를 버리고 완벽하게 이타주의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바른 깨달음을 얻고 이웃에게 기쁨과 행복을 회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이러한 불교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는 현장을 찾아보기란 그리 만만치 않다. 〈나의 서원 나의 삶〉은 이렇듯 불교 신앙의 출발점이라 할,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웃과 함께 행복할 것을 서원하고 실천하는 스님과 재가불자 스물다섯 분의 이야기를 담았다. 2012년 현대불교신문사 연중기획 '함께 행복합시다-나의 서원 나의 신행' 에 연재된 스님과 재가불자, 스물다섯 분의 인터뷰 글을 묶어 〈나의 서원 나의 삶〉으로 출간되었다.

"전국의 불자들이 염불삼매에 드는 모습을" 꿈꾸며 염불원 건립의 서원을 간직한 채 50년 동안 경전 강설에 매진해 온 각성스님. 서원과 정진은 항상 현재진행형임을 삶으로 보여주고 계신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을 이끌고 있는 성운 스님. "찬불가 보급 운동을 한 30년쯤 하겠습니다." 하고 세운 서원이 어쩌다가 평생의 일이 되어 버렸다며 너털웃음을 지으시는 미수의 찬불가 작곡가 운문 스님. 잘못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다시 재발심할 것을 강조하시는 경전 한글화의 산증인 월운 스님. 불교 백화점, 영화관, 사찰음식점, 대규모 법당 등을 갖춘 불교타운을 꿈꾸는 부산 불교복지의 대명사 혜총 스님.

"봉사 활동은 깨달음에 이르는 수행" 이라며 무주상보시를 실천하고 있는 봉사단체 작은손길의 김광하 대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가 불자이고 포교사인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며 청소년 포교의 멈춤 없는 열정을 보여주는 봉화산 정토원 선진규 원장. 보현행원의 서원을 하루도 잊지 않고 27년간 108배 수행을 지속했다는 송석구 전 동국대 총장. "목판에 경전을 새기는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영화를 제작했다." 며, 현장을 떠난 뒤로 불서 저술과 법보시에 매진하고 있는 한국 영화계의 거목 한갑진 한진흥업 회장 등. 이 책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그야말로 한평생 서원을 실천해 온 참다운 불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불교는 서원을 세우고 실천해 가는 종교다. 서원은 절대자의 권능에 의지해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기원과는 본질적으로 성격을 달리한다. 불보살의 서원을 살펴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된다. 이웃을 위한 무한 헌신과 봉사의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다. 철저하게 이기주의를 버리고 완벽하게 이타주의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바른 깨달음을 얻고 이웃에게 기쁨과 행복을 회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한국불교의 현실에서 이러한 불교의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는 현장을 찾아보기란 그리 만만치 않다. 〈나의 서원 나의 삶〉은 이렇듯 불교 신앙의 출발점이라 할, 이웃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며 이웃과 함께 행복할 것을 서원하고 실천하는 스님과 재가불자 스물다섯 분의 이야기를 담았다. 수행과 신행의 각 분야에서 상구보리하면서 하화중생하고, 하화중생을 상구보리로 승화시키는 그분들의 수행과 신행담은, 이 시대의 사표로서 우리 불자들에게도 신행의 길잡이가 되기에 충분하다.

불교는 서원 세우고 실천하는 종교
불교계 명사 25인 서원과 신행

약사선원 석정수 스님의 기적의 약손비법

석정수 스님은 약사여래 부처님 가피를 통해 환부에 있는 병마를 직접 손으로 뽑아버리는 신비의 약손을 가진 스님입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불자님들의 건강상담은 물론 전생업장소멸. 사업성취 등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약수선원에서 하는 일

1. 수행하시는 스님들께 약차보시 및 건강을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2. 노숙자. 장애자들에게 대중공양(주먹밥)을 하고 있습니다.
3. 우울증, 수면장애, 신경통, 위장병, 요통, 당뇨, 고혈압, 견비통, 중풍, 부인병, 갑상선 등 상담을 통해 병을 치유시켜 드립니다.
4. 육신의 병, 정신의 병, 잡신의 병, 귀신의 병 등 각종 빙의로 고통받는 분들의 수행도량

상담전화 :
010-2766-7677 **약사선원** 경기 양주시 장흥면 부곡1리 58번지

파손, 도난 걱정 끝!!

이제는 범양금고 철제 불전함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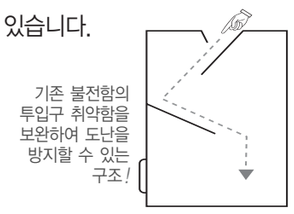
불자의 신심으로 정성을 다해 만듭니다

기존 목재 불전함의 단점을 한번에 해결한 철제 복전함으로 실내외 어디든 정재보호와 도량장엄의 역할을 다합니다.

◆ 특징 : 파손 및 도난 걱정 끝, 견고한 통강판 사용, 번호 및 키 잠금장치, 바퀴 부착으로 이동편의

① 높이 650 × 너비 700 (85만원)
② 높이 620 × 너비 420 (50만원)
③ 높이 620 × 너비 350 (40만원)
④ 높이 900 × 너비 600 (80만원)
⑤ 높이 730 × 너비 600 (70만원)
⑥ 높이 1000 × 너비 600 (80만원)
⑦ 높이 700 × 너비 700 (70만원)
⑧ 높이 740 × 너비 650 (85만원)

◆ 주문 후 2 ~ 3일내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배송비, 송달비 별도)
◆ 시안 제작 후 사진으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모든 일반 금고 판매합니다.
◆ 입금계좌 (예금주 : 강순길)
기업은행 010-5414-2304 / 국민은행 614101-01-048120
농협중앙 221103-52-056910 / 하나은행 479-910037-98607



범양금고 031)764-6234. 010-5414-2304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연곡길 8 (연곡리 172-5)